

260년간의 침묵: 금교기에도 은밀히 신앙을 지켜온 잠복 기리시탄

잠복 기리시탄이란?

잠복 기리시탄이란, 그리스도교가 금지된 1614년부터 약 2세기 반에 걸쳐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온 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무라 번이 추진한 이주 정책의 결과, 기리시탄은 18세기 말까지 소토메 지구에서 고토 열도 등의 낙도 등지로 이주하며 그곳에서 잠복 기리시탄의 취락을 형성했습니다. 금교기를 견뎌내며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해 온 기리시탄은 규슈 서부를 중심으로 약 3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됩니다.

신앙 조직의 형성과 계승의 배경

그리스도교 금교 전, 계속해서 신자가 증가했던 시기에 선교사들은 포교에 필요한 선교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중 여러 명을 신앙의 지도자로 선정하고, 자신들만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이 같은 신앙 조직에는 의료나 빈곤 구제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자비조(慈悲組, 미제리코르디아)’와 신자들의 신앙심 유지와 강화를 돋는 ‘신심회(信心会, 콘프라리아)’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을 지탱했던 이들 조직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잠복 기리시탄은 기도와 교회력을 주관했던 ‘조카타’, 세례를 내리는 ‘미즈카타’, 전도를 수행했던 ‘기키야쿠’라고 불리는 지도자들 아래에서 은밀히 기도하며 신앙 의례를 치러 왔습니다.